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더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우크라이나 위기 속 유로의 고통은 달러의 행복
- ◇ (칼럼)-러시아 디폴트: 학습효과와 거래상 대방 위험
- ◇ (초점)-윤석열 당선에 계산기 돌리는 채권 시장.. 주목할 변수 두 가지
- ◇ (초점)-한국 대선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의 방향과 강도
- ◇ (초점)-잘 나가던 대만 시장, 돌연 한국과 동조화.. 지정학 리스크와 외인 매도

발행: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민간인들이 대거 탈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한 아기가 경찰관인 아버지와 작별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로이더/토머스 피터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3월1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32.0	-1.4%	-3.5%	-8.6%	유로	1.0911	-0.1%	-4.0%	-6.9%
100엔 대비	1,054.7	0.6%	-2.1%	+1.8%	엔	117.30	-2.1%	-1.9%	-10.3%
유로 대비	1,349.8	-1.4%	0.1%	-1.9%	위안	6.3400	-0.3%	0.2%	+2.7%
위안 대비	195.14	-1.3%	-4.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2,944.19	-2.0%	-9.3%	+18.7%
코스피	2,661.28	-1.9%	-10.6%	+3.6%	나스닥	12,843.81	-3.5%	-17.9%	+21.4%
코스닥	891.71	-1.0%	-13.8%	+6.8%	S&P500	4,204.31	-2.9%	-11.8%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60.90	-3.9%	-10.9%	-4.9%
국고채 3Y	2.255%	4.1bp	45.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485%	2.2bp	47.4bp	+67.6bp	미국채 2Y	1.750%	26.0bp	102.0bp	+61.0bp
국고채 10Y	2.700%	4.2bp	45.0bp	+53.7bp	미국채 10Y	2.000%	26.0bp	49.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109.09	-5.1%	44.6%	+55.8%	한국 5Y	30.6bp	0.7bp	8.5bp	-0.7bp
금(현물)	1,985.67	0.9%	8.6%	-3.6%	일본 5Y	18.6bp	-0.1bp	1.0bp	+2.1bp
TR상품지수	3,889.04	3.7%	16.5%	+24.6%	중국 5Y	56.5bp	-1.0bp	15.3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3월 14일(월)>

- 금감원,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5:30)

<15일(화)>

- 한은, 2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한은, 2월 24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16일(수)>

- 통계청, 2월 고용동향(08:00)
- 금감원, 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12:00)

<17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7:30)
- 기재부·한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3월호)(10:00)
- 한은, 1월 통화 및 유동성(12:00)

<18일(금)>

- 기재부, 1차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검토정책점검회의(08:00)
- 기재부, 3월 최근 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3월 14일(월)>

- 특이 일정 없음

<15일(화)>

- 중국 2월 소매판매·산업생산 (11:00)
- 중국 1-2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11:00)
- 유로존 1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2월 PPI (21:30)
- 미국 3월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16일)

<16일(수)>

- 일본 3월 로이터단칸 제조업·서비스업 지수(08:00)
- 일본 2월 수출입 (08:50)
- 중국 2월 주택가격 (10:30)
- 일본 1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2월 소매판매·수출입물가 (21:30)
- 미국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미국 1월 소매·기업재고 (23:00)

<1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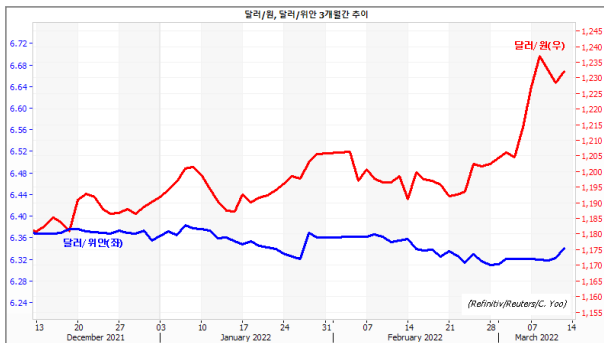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발표 (03:00)·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 일본 1월 기계류주문 (08:50)
- BOJ, 통화정책회의 (~18일)
- 영란은행 금리 발표 (21:00)
- 미국 3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2월 주택착공·건축허가 (21:30)
- 미국 2월 산업생산 (22:15)

<18일(금)>

- 일본 2월 CPI (08:30)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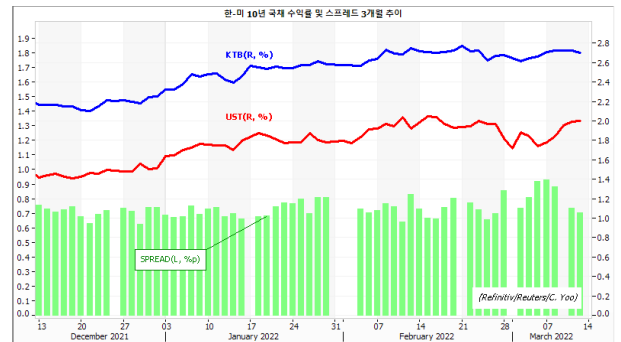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연준이 2018년 말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상승 우위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20-1250 원이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월 의회 증언에서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 만큼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하지만 연준이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색채를 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있다.
- 한편, 이번 주는 연준 이벤트 외에도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일정이 또 대기 중이다. 러시아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일이 16일 도래하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여부다.
- 러시아가 루블로 지급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만약 실제 루블로 이자 지급이 이뤄진다면 러시아는 기술적 디폴트에 처할 수 있다.
- 시장 반응이 있어 왔고,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러시아 익스포저를 볼 때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 유동성 경색과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전이될 수 있다.
- 최근 달러/원 환율은 추세적인 상승세에 있다. 외환당국의 변동성 관리 수위 따라 장 중 환율 상승폭이 조절되는 듯하지만, 대외 불안에 대해 환율이 순식간에 반응하는 데다 수급상 달러 수요 강도가 점차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환율의 고정 높이기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제는 속도다. 달러/원 상단이 험거워지면서 환율이 상승 가속도를 낼 리스크가 커졌다.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982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정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금리의 급격한 반전 가능성도 낮아지는 모습이다.
-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패닉 셀링 우려를 덜긴 했지만, 윤 후보 역시 5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인어서 수급 부담도 여전히 크다. 정권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한 소식에 따라 채권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크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5~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긴축 돌입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려됐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향후 양적 긴축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 국내 투자자들은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할 전망이다. JP 모건 등은 러시아 정부가 당장 오는 16일 달러 이자 지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각종 제재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기술적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 경우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달러/원 환율의 안정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환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다면 채권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환율 상승폭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의 원화채 매도 우려로 원화 채권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석)-우크라이나 위기 속 유로의 고통은 달러의 행복

뉴욕, 3월 11일 (로이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럽 경제 성장 우려 속에서 달러 가치는 향후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번 군사 활동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달러지수는 올해 현재까지 3% 상승해 21 개월 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글로벌 주식이 타격을 입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달러가 얼마나 더 강세를 보일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응해 연내 수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ECB의 경우 치솟는 원자재 가격이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과 유로존 채권 수익률 격차 확대 전망도 유로/달러를 2년여 만의 최저치 부근까지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주었다. 유로/달러는 ECB가 돌연 채권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겼다는 소식에도 10일 오후 0.8%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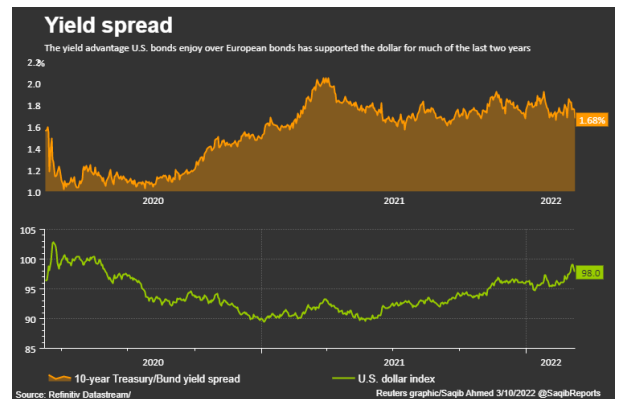
비관 라이 CIBC 캐피탈마켓츠 북미지역 외환 전략 헤드는 "달러가 몇 달간 강세를 보인 후 유로가 절상되리라는 연초 견해가 다소 후퇴했다"라고 말했다.

최근 두 통화의 움직임은 연초 투자자들의 전망과는 배치된다. 로이터가 1월 말 실시한 조사에서 전략가들은 대체로 달러가 황보세를 보이고, 유로는 향후 12개월 동안 1.5% 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 및 투자 관리업체인 베일라드의 에릭 리브 최고투자책임자는 "올해 초 유로 강세를 지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약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연초 전망했지만, 현재는 유럽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유로 리스크 헤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시장과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달러 강세는 미국 내 수출업체의 이익에 부담이 되지만, 연준에게는 최근 40년 만의 최고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유로 약세는 이미 높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주 연준 정책회의를 시작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165bp 이상 오를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ECB의 경우 10일 채권매입 3분기 중단 계획을 발표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됐다. 시장은 현재 올해 약 43bp에 부합하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리라 점치고 있다.

이달 초 누빈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에 달하면 유로존 성장률이 2%포인트, 미국은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격차는 미국의 국내 에너지 공급량이 많고 세금이 낮은 덕분이다.

한편, 달러 강세가 연말 완화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드 글로벌 주요 10개국(G10) 외환 리서치 헤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라질수록 유로/달러는 연말 1.1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유로가 받는 고통이 약간 더 클 수 있다고 파레쉬 우파다이아 아문디 채권·외환 전략 디렉터는 말했다.

그는 "유로 저점은 아마도 등가 수준 바로 위일 것"이라며 현재 유로에 대해 숏 포지션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칼럼)-러시아 디폴트: 학습효과와 거래상대방 위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3월 1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지난 1998년 8월 17일, 러시아가 국내 및 국외 채무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했다. 달러로 표시된 외채를 부도낸 것뿐 아니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자국 통화 표시 채무까지 부도를 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러시아 디폴트의 충격은 곧 브라질을 덮친다. 러시아 자산에 몰린 투자자들이 당시 글로벌 경제의 약한 고리였던 브라질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의 파고가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빌려주는 사람이 사라졌고 달러를 돌려받으려는 사람만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달러 경색의 시작이었다.

▲ 1998년 LTCM 파산 학습효과

러시아의 디폴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던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LTCM의 파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사태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LCTM 투자 모델의 핵심은 신용위험이 같지만 스프레드가 다른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한 차익거래다.

LCTM은 유동성 선호에 따른 지표물 프리미엄 때문에 신규 발행 채권과 비지표물 채권 간에 발생하는 스프레드가 결국 수렴한다는 점을 타깃으로 삼았다. 비지표물 채권을 사들이고 신규 발행 채권을 공

매도한 후 시간이 흘러 스프레드가 수렴할 때 기존 매입 포지션을 정리해 공매도한 채권을 정리해 스프레드만큼의 이익을 얻는 식이다.

거래당 한계 이익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켜 포지션의 파이를 키웠다.

소위 무위험 차익거래로 불렸던 투자방식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LTCM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모두가 달러만을 원하는 신용경색 상황에서 시간을 버텨낼 힘이 모자랐고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장의 함정

2022년 3월이다. 서방국가들의 전방위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다시 한 번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요즘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정부의 달러 및 유로화 표시 국채 잔액은 약 396억달러로, 이 중 외국인 비중은 51%를 차지한다. 외화 발행 회사채 규모를 포함할 경우 규모는 총 2580억달러에 육박한다.

이 중 러시아 정부는 3월 말까지 7억 3천만달러에 달하는 달러화 국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5월에는 원금 20억달러와 이자 1.3억달러 지급일이 돌아오고 5월부터는 유로화 국채의 만기도 일부 도래할 예정이다.

JP 모건 등은 러시아 정부가 당장 오는 16일 이자 지급 일정에 달러를 상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각종 제재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반출이 불가능할 경우 '기술적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 디폴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1998년 학습효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장 표면에 드러난 것 외에 예상치 못했던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 시점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를 누구도 답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다.

당장 러시아 관련 국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신용부도스왑(CDS) 포지션이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에 대한 유의미한 헤지 기능을 할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6일 보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CDS 계약의 결제 메커니즘이 훼손됨에 따라 채권 디폴트에 따른 유효한 헤지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트레이더들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건 달러뿐이다.

글로벌 은행들 입장에서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적격담보물을 달러 자산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그것도 신용이 확실한 상대방만 고르고 골라 거래하려는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거래는 더 위축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기관, 특정 국가에서 달러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 불안심리가 스노우볼 효과를 일으키면서 '글로벌 달러 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1998년과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 당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수많은 국가가 달러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시점이다. 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는 단기로 달러를 빌린 후 장기로 자금을 굴리는 미스매칭 투자의 후폭풍으로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완충할 외환보유액도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겪으며 많은 신흥국이 환골탈태했고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쌓아놓은 상태다. 단기외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이뤄져 왔다.

문제는 심리다. 러시아 디폴트 자체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자기실현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쉽지 않다.

최악의 가능성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한 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이유다.

【초점】윤석열 당선에 계산기 돌리는 채권시장.. 주목할 변수 두 가지

서울, 3월 10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함에 따라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분주히 움직이며 향후 금리에 미칠 영향을 가능하고 있다.

당장 채권시장에선 금리 하락 재료로 반응하는 모습이다.

10일 국내 채권시장은 지난 이틀 동안 최근 급락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급등한 미국 국채금리 변동폭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했지만 이후 빠르게 약세 폭을 줄여나갔다. 시장에선 윤 후보 당선이 부른 효과라는 진단이 나온다.

▲ "테일 리스크 줄었다"

이 같은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 요인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다. 이 후보든 윤 후보든 대선 유세 과정에서 수백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을 쏟아낸 것에는 차이가 없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여당이 제시한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야당이 제시한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선 266조원이 소요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해 채권시장의 부담을 키운 바 있다.

다만, 국회 의석의 여소야대 현실, 추경 편성을 위해 긴급재정명령까지 동원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 윤 후보의 재정지출 스탠스가 상대적으로 유연해 보인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다.

이날 씨티은행도 대선 결과 파장을 분석하는 보고사에서 "새 정권 역시 2025년까지 역사적인 수준으

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정책을 택하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와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테일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의 정부부채 수준은 원화재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늘 시초가에 일단 모두 던져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정을 많이 풀겠다는 입장은 같지만, 여당은 적자국채 증가를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고 야당은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추경은 하되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이번 대선 결과가 최소한 숫 재료는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도 영향 기대

채권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향후 새로운 정권의 수립이 향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현재 정권이 연장될 경우 대규모 재정지출과 강도 높은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새 정권이 현재 정권보다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달에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을 내정하는 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소 4월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공약의 30% 정도까지만 현실화될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며 "다만 재정지출에 더 적극적인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 야당이 집권하면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한은 총재도 지금의 청와대가 염두에 둔 사람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금융통화위원회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선임이 이뤄진다고 해도 한은 총재로 급진적 매파가 오기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과도한 기대 금물..채권 추격매수 신중해야"

다만 윤 당선인이 공언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당연한 현실인 만큼 이번 대선 결과 자체가 강력한 채권 롱 재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폭넓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적자국채 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C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포퓰리즘에 경도된 건 마찬가지"라며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또 한 번 경쟁적으로 추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권을 추격 매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의 A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채권시장이 '패닉 셀'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부담은 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덜 공격적이라는 사실 하나만 믿고 채권 롱으로 들어가기에는 정세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초점)-한국 대선 결과가 증시에 미칠 영향의 방향과 강도

서울, 3월 10일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올해 국내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한 가운데 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영향에도 다방면으로 관심이 쏠린다.

선거 결과가 나온 10일 서울 주식시장은 당장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우호적인 재료로 받아들인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는 정책 수혜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가 수출 중심의 한국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 불확실성 해소 및 제도 개선 기대

선거 이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내 정책 여건보다 글로벌 경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코스피 방향성이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차기 정부가 맞이하게 된 여소야대 국정 여건도 강한 정책 추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어느 때보다도 결과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새 정부 집권 첫해의 주식 수익률이 양호했다는 인식이 있지만, 대선 시기가 대체로 경기 하강기 및 저점에 있었던 것이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선 이후 증시 흐름은 경기 방향을 따라갔고, 정치 이벤트가 반전의 포인트가 되지는 못했다"면서 "정권 말 정책 공백 이후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일부 탄력을 얻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 이후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도가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 공약도 앞다퉈 나왔던 만큼, 시장 제도와 관련한 변화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자회사 물적분할 및 내부자 주식 대량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선거 기간 동안 발표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들 요인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상승률이 시가총액·기업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완화되리라는 기대는 해봄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는 올해 초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선 후보 단계에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어느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 정책 차별화 업종 '들썩'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보다는 업종별 영향이 더 크다는 인식으로 당장 10일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과 원자력 발전 등 현재 정부 정책 기조와 차별화되는 부문들이 특히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속에 GD 건설, DL 이앤씨, HDC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 대표주가 일제히 큰 폭 상승했고, 두산중공업 등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급등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으로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재건축 기준 조정 등을 내세웠다. 여당 후보와 정책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던 만큼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건설 업종 주가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은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정책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등을 포함해 기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했다.

최고온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탈원전은 현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며 여야 후보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인 만큼, 새 정부에서 변화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이라면서 "유럽처럼 실리와 현실을 챙긴다는 점에서 원전산업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는 IT,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도 윤 당선인이 그간 과학기술 혁신을 앞세웠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혔다.

▲ "외교정책 지켜보아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렸던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외교정책 변화가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로 여겨지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과 함께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구조 강화,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안보협의체(Quad, 쿼드) 가입 모색을 공약했고, 중국과는 "일정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씨티, 캐피탈이코노믹스, ING 등 해외 기관들은 윤 당선인의 종말단계 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사드) 추가 배치, 대중국 삼불정책 철회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일제히 리스크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중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한국이 중국 안보에 해를 끼칠 경우 사드 사태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하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소비재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취임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적 행보에 따라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캠프는 미·중 균형외교보다 한·미·일 동맹강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대중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임기 시작이 5월 10일부터라 민감한 사안을 먼저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향후 사드 추가 배치나 쿼드 가입 등에 대한 발언 수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한편, "대일관계 회복시 반도체 소재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여행·교류 확대 가능성이 열려 있어 관련주 영향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초점)-잘 나가던 대만 시장, 돌연 한국과 동조화..지정학적 리스크와 외인 매도

서울, 3월 11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후 혼란이 전 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대만과 한국 금융시장의 약세 변동성이 최근 유독 커져 관심이 쏠린다.

연간 기준 원화는 달러 대비 약 3.5%, 대만달러는 약 2.5% 절하 중이다. 절하폭 기준으로 원화는 주요 아시아 통화 중 단연 선두고, 대만달러는 인도 루피와 함께 원화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한편 코스피는 연간 10%, 대만 가권지수는 5% 각 하락 중이다.

대외 불안이 가중되는 여건에서 한국과 대만 금융시장의 동반 부진은 당연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대만 증시와 통화는 한국과의 차별화 양상은 뚜렷했다.

러시아는 이번 군사 활동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령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초 역외 투자자들의 '대만 롱, 한국 숏' 대응 전략이 회자될 정도로 대만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하지만, 동유럽 지정학적 긴장이 현실화된 이후부터 대만 시장은 분위기가 급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만 달러에 대해 지역적인 안전지대에서 지정학적인 프록시 통화로 지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 온도차 다른 리스크..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최근 대만 증시는 외인들의 대대적인 매도 공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IT 산업에 대한 셀 오프 영향도 있지만 이보다 최근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외인 매도를 촉발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BOFA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이 고조된 이후부터 대만의 자금 유출이 강화됐다"면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는 146억달러로 급격하게 확대돼 한국보다 거의 세 배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OFA는 "현재 아시아 전반에서 특히 달러/원, 달러/대만달러 위주로 리스크 리버설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은 외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어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도 커졌다.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새 ICBM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라고 밝히며 추가 제재 발표를 예고했다.

물론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북한 리스크에 대해 민감해하는 상황은 아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자산과 환율이 디스카운트돼야 한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가 주식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고, 심리적인 불편함이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원화에 대한 영향도 현재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시장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은 다르고, 또 대만과 한국 지정학적 상황은 다르다. 증시나 원화가 북한 관련 불확실성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면서 "원화는 지금 대외 불안요인과 함께 철저하게 타이트한 달러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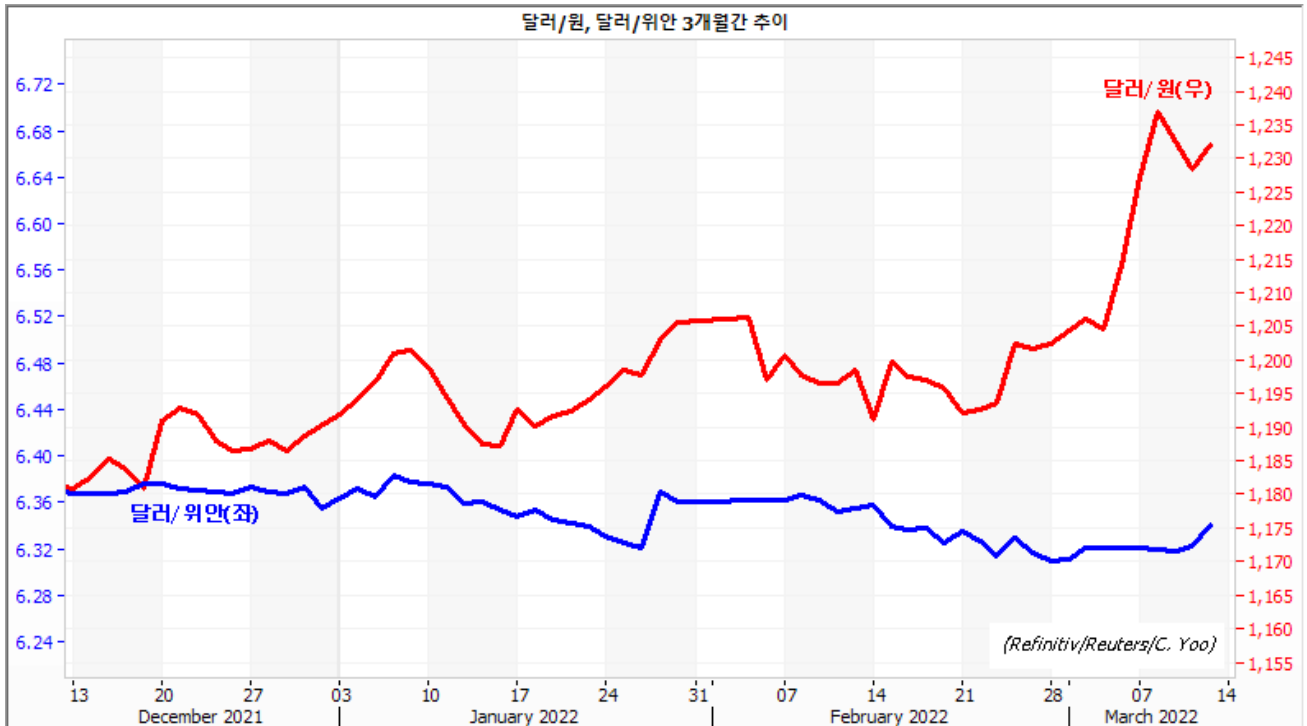
다만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력한 대북 정책을 지지해 온 만큼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언제든지 수면위로 오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원화를 비롯한 한국 증시도, 대만도, 글로벌 어디서든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많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올해 한 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은 확실한데, 이러한 패턴에서 약세를 보여 왔던 시장들은 리스크 헤지 수요가 더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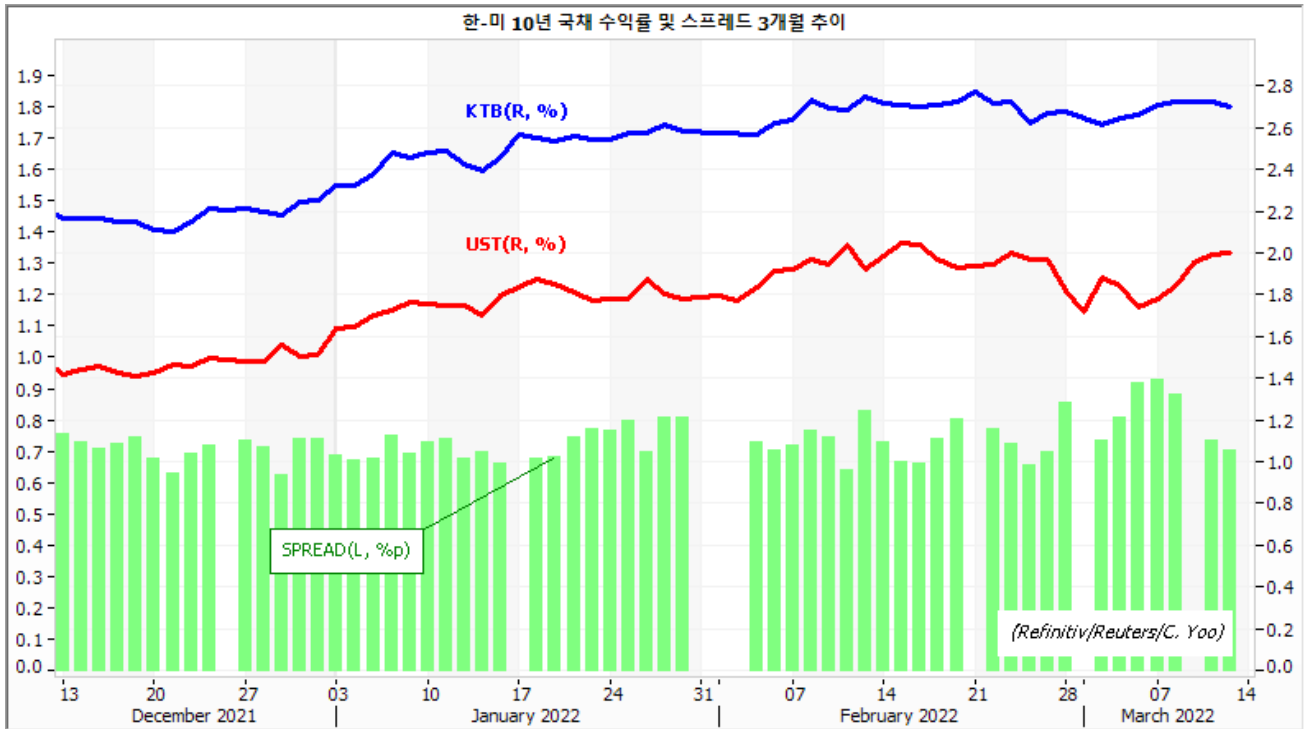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